

'world _ S E Q U E N C E S' / 99

배경

Preview means Memory

기억 (Preview)

이 개념은 35년전 라이너 융한스 (Rainer Junghanns)가 네덜란드 Bergen aan Zee) 대서양 앞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각적 환상에 휩싸였던 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 경험은 그의 예술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무한한 공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안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찰나의 연속적 파편(staccato)과 사유적 시각 경험이 지속되는 사이를 진동하는 시간의 간극을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비교의 행위 - 인식의 확산을 위한 몸짓이며, 근본적인 물리적 불확실성의 결과로서, 예술적 과정으로서 - 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뒤, 그의 ‘World _ Sequence’의 첫 번째 작업인 ‘_ Paddling to L O N D O N’이 칸 해변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후 전개될 작업의 원형적 시퀀스 (primordial sequence)로 자리잡았다.

이 경험은 또한 프로젝트의 메타적 개념인 ‘Preview means Memory’를 설명해준다. 이 개념은 1995년 피렌체에서 열린 <Drawings> 전시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NRW 미술 컬렉션의 도리스 크리토프 (Doris Krytof)의 글과 도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미리보기 (Preview)

'World _ S E Q U E N C E S / 99'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의 경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내 작업 안에 드러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예술가들은, 또한 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인 이들은 다른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각자의 ‘시퀀스’를 더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를 전시하고 나누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시퀀스 참여 작업은 다음의 매체로 구성될 수 있다 :

영화와 비디오, 사진 (우선적 매체), 컴퓨터 기반 예술, 넷 아트 (Net Art), 인터랙티브 아트,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프로젝트는 99개의 연속된 시퀀스를 출발했으며, 과정적 전개와 발표를 걸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영화 예술 작업 (Complete_Film_Work)으로 귀결될 예정이다.